

전세계 'RE100' 바람에도...정부, 재생에너지 확대 '소극적'

산업부, 전력수급 기본계획 발표...재생에너지 비중 18.8% 불과 정부, 2030년까지 무탄소발전 53% 달성 계획...원전 비중 더 높아

최근 정부가 '제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하 전기기본)'을 발표한 가운데, 오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가 전체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발전량 등이 10차 전기기본 당시와 크게 변한점이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자연친화적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겠다는 'RE 100'이 확대되는 추세지만, 재생에너지 발전량 및 비중의 증가폭이 적다는 점에서 무탄소 발전을 통한 기후위기 해소라는 전세계적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5일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발표한 '제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발전량을 지난 2023년 기준 588TWh(테라와트시)에서 오는 2030년 642.6TWh로 9.3% 확대할 계획이다.

전원별로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제 28차 당사국 총회(COP28)를 통해 각국이 최근 기후위기에 따

른 무탄소 발전의 중요도를 상향시키면서, 무탄소 발전력인 원전-재생에너지 등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전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3배 확대하고, 에너지효율을 2배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유럽연합(EU)은 오는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을 적극 보급해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42.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같은 기간 독일 역시 총 전력수요의 8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기 위한 '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제 11차 전기기본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8.4%에서 18.8%로 확대하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른 실정이다.

지난 제10차 전기기본에 비해서도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은 오는 2030년 기준 21.6%에서 21.7%로 0.1%p 확대하는데 그쳤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오는 2030년까

지 무탄소발전 비중 53%를 달성하겠다는 전망치를 내놨지만, 이 역시 재생에너지(18.8%)보다는 여전히 원전(31.8%)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제11차 전기기본에서 내세운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전망치 역시 120.8TWh로 기존 제10차 전기기본 전망치(115.86TWh)와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태양광 발전용량을 기존 대비 3배까지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비중도 대폭 높여겠다는 방침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력 자급률이 100%를 넘어섰고, 전국에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이 가장 높은 전남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전남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신안 해상풍력단지, 전남 해상풍력 프로젝트,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등의 사업들이 순차적으로 완료되면 재생에너지 등 발전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역의 잉여전력을 전력 수요가 많은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송전망 확충 지원 문제 등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국농어촌공사,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설명회 개최...3월 4일까지 신청자 모집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21일 서울 용산에서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와 함께 '2025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번 설명회에는 양 기관 관계자와 해외농업자원개발을 희망하는 사업자 및 개인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위기 대응과 농식품산업의 글로벌 진출 활성화 모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용자지원사업'과 '기술개발 해외적용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용자지원사업은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비용의 최대 70%를 연리1.5~2.0%에 5년 거주 시

10년 균등상환한다는 것을 골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술개발 해외적용 지원사업은 해외진출 법인의 현지 시범영농, 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5000만원까지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용자지원사업은 오는 3월 4일까지 1차 신청자를 모집하며, 기술개발 해외적용 지원사업은 2월 말에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성경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해외로 진출할 의지를 지닌 우리 기업들이 지원사업의 지원자격 등 궁금증을 해소하고 글로벌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한전KDN, 내부통제 역량 강화 교육...경영 투명성 제고 노력

우수사례 공유 중점 추진

한전KDN이 지난 20일 나주시 빛가람동 본사 빛가람홀에서 '내부통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이번 교육은 내부통제의 중요성과 수행업무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목적으로 '2024년 시범운영 결과 우수사례' 공유를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이날 교육에는 정수욱 한전KDN 기획관리본부장을 비롯해 조직별 내부통제 담당자 110여명이 참석했으며, 내부통제 분야 외부 전문가의 강연 및 시범운영을 통해 분석된 개선사항 등에 대한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교육 참여자들은 외부 전문가들의 강연을 통해 변화관리, 자가점검 및 설계, 운영평가 등 업무 프로세스 및 역할별 수행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내부통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어 참여자 간 토론을 통해 내부통제 실천에 대



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한전KDN 관계자는 "실무 담당자들의 내부통제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조직의 내부통

제 수준을 한 단계 올리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전KPS,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KARE' 구축...“업무 혁신 가속”

한전KPS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인 'KARE'를 구축하고 업무에 활용하는 등 저비용·고효율로 업무개선에 나섰다.

KARE는 한전KPS가 지난해 7월 공공기관 최초로 내부 인력만으로 사내 인프라를 활용해 만든 오픈 대규모 언어 모델(LLM) 기반 서비스다.

KARE는 내부 직원들이 외부로 정보·기술의 유출 걱정없이 각종보고서나 논문 등을 빠르게 요약·분석·번역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문서

작성이나 아이디어 기획 과정에서도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자체 개발한 서비스라는 점에서 비용절감 효과와 더불어 외부 기술 의존도를 낮추고, 디지털 업무혁신 성공사례로 꼽혔을 뿐만 아니라 사내망 구축을 통한 정보보안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다양한 기관들의 벤치마킹이 잇따르고 있다.

또 AI를 이용한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다양한 기능을 추가 탑재하고 있다는 점도 다양한 기관들

의 눈길을 끌고 있다.

근로자 안전을 위해 추가로 개발한 '안전케어'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된 법적 해석, 적용, 유사 사례 분석 등을 제공한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가상현실(VR) 정비 훈련 서비스를 확대해 현장 실습 환경을 VR로 구현하면서, 현실감 있는 경험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저비용·고효율로 근로자 역량 향상 효과를 거두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

'필리핀 진출 30년' 한전, 에너지 정책 목표 달성 협력

전력분야 신기술·신사업 필요성 강조

한국전력공사(한전)가 한전의 필리핀 진출 30주년을 맞아, 25일 필리핀을 방문해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필리핀 정부의 에너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전은 필리핀 정부와의 논의 자리에서 오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50%로 확대하고자 하는 필리핀의 에너지 정책 목표 달성을 돕기 위해 전력분야 신기술·신사업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한전의 기술력이 필리핀 현지에 접목될 시 에너지 효율이 향상되고, 전력망 운영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더불어 한전은 필리핀 현지로의 진출 확장을 위해 지난 24-25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현지 최대 발전회사인 아보이티즈(Aboitiz), 최대 배전회사인 메탈코(Meralco) CEO와 면담을 갖고, 사업 협

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또 아보이티즈, 메탈코와 양사간 전력·에너지 분야 신기술·신사업 협력을 위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해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한전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망 운영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K-스마트 그리드 플랫폼을 구축해 효율적인 송전, 배전망을 운영하고 있다"며 "한전이 보유하고 있는 전력공급 관련 핵심 기술들을 활용해 해외시장을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발전 및 배전 분야에서는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IDPP), 차세대 지능형 배전망 운영시스템(ADMS) 등 전력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혁신적인 스마트그리드 플랫폼을 적용한 전력 품질 향상 등으로 필리핀 전력시장에서 상호이익을 극대화하는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룩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룩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